

# 여·야·청 '3자회담' 무슨 얘기 나눌까

## 회담 내용·진행 방식 의견 절충 난항 속

### 국정원 개혁·채동욱 사태 핵심 의제 전망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면서 의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초 회담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공감을 표하면서도 회담 의제와 방법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기대만 우려하는 심정으로 회담을 바라보고 있다.

당직자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모든 민생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국가정보기관이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데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 엄중한 사선"이라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이 독재정권의 낡은 약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자로 국민 통합주의자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정치권에서는 이명박정부 때 벌어진 일인 만큼 박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축소와 같은 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시급한 민생 현안 관련 법률안 처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세 폐지나 취득세 인하와 같은 8·28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악발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반면, 야당은 일각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포함한 경제민주화 법안과 무상보육 확대, 부자감세 철회 등 민생 문제를 전면에서 내세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에 대한 여러권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서 회담 참가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생산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한편, 회담의제와 방식을 놓고 의견결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회담 공개 수위와 방식도 아직 세부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이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3자 회담을 TV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해 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거부사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의사 표명 사태와 관련, 16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의 국회 3자회담에 참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3자회담 수용은 했지만

## 장외투쟁 접는 것은 아직 생각중?

### 김대표 요구사항 안 받아들여지면 더 강경해질 수도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3자 회담 제안을 우여곡절 끝에 15일 다시 수용하면서 40일 넘게 해온 장외투쟁이 종대기호에 서게 됐다.

더욱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회담 거부까지 만지작거렸던 민주당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결국 회담 수용을 선택, 정치적 부담은 처음 회담 수용 때보다 더욱 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채 총장 사의표명을 "지난 대선 국기문란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3자회담이 무의미했다는 주장도 많지만 내일 3자 회담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3일 "역사의 전진을 위해서라면 망설임 이유가 없다"며 3자회담을 받아 안았다.

김 대표의 회담 수용은 국정원의 최고운영자인 박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대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담판'을 통해 막대한 정국의 돌고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기국회개 회 보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장외투쟁의 출구를 어떻게든 뚫어야 하는 상

황에서 대통령과 김 대표 간 만남 회의를 놓친다면 '모멘텀'을 쉽사리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애초 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형식을 요구했던 김 대표는 3자회담 제안을 수용하면서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면서 "관례를 벗어나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그 점도 받아들여겠다"며 형식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단순회 3자 회담이 이뤄진다고 해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끝바로 접고 국회에 전면 등원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김 대표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강경한 기류가 강해지면서 더욱 여야 대치는 심각해질 수 있다.

김 대표도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만나기만 하면 천막을 접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며 "장기전을 생각하며 나왔으며, 설까지 갈 수도 있다"고 배수진을 친 바 있다.

이 때문에 3자 회담 후 민주당은 오히려 장외투쟁 철수 여부를 놓고 강운파간 노선투쟁도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차대통령-여야대표 회담 예상 의제와 입장

	정와대	새누리당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과 및 특검	불가(※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유감 표명 관측)	불가	민주주의 위기 상황 사과해야
부자감세로 세법 개정안 수정	국회 논의 존중	일부 세구간 조정 검토	상위 1% '슈퍼부자'와 재벌·대기업에 집중 과세
경제민주화	지나친 기업 옥죄기는 반대	경제활성화 저해 부작용 손질 필요	재벌총수 전원 방지 '상법' 원안 유지... '현정부 추진 의지 후퇴'
부동산시장 활성화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폐지·취득세 인하 등 8·28대책 후속 입법 처리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폐지·취득세 인하 등 8·28대책 후속 입법 처리해야	전월세 상한제·임대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야

# “교과서 교과서로 공부하면 수능 절반이 틀린다”

### 민주 박홍근 의원 주장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4일 "친일·독재 미화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2013학년도 수능능력시험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풀이하면 전체 문항 중 절반

에서 잘못된 답안을 고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8번 문항에서 '계엄 당국이 발표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보기 (나)는 5·18 민주화운동을 의미하는데, 해당 교과서엔 신군부의 발포 관련 내용이 전혀 없

어 수험생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신헌법과 관련한 문항의 오류도 지적됐다.

19번 문항은 '(가)는 헌법에 대한 논의를 전면 금지해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는 한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시 내용을 제시했는데, 수험생은 '(가)가 당시 위헌 판결을 받은 유신헌법을 유추해야 해당 문항을 풀 수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과서 교과서에는 유신헌법이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중임 제한 없이 선출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

는 긴급 조치권을 발동한 근거'라고만 설명돼 있어 (가)가 설명하는 것이 유신헌법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교과서로 공부했다면 지난해 치러진 수능시험 중 20문항 50점 가운데 10문항 25점을 놓쳤을 것"이라며 "역사관을 왜곡하고 역사적 사실도 잘못 기술한 교과서 교과서의 검정 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故 김철씨 37년만에 무죄

(전 통일사회당 당수)

### 김한길 대표 부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옥살이

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립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대표)가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와 방곡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김 전 당수의 재심에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적·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재심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60) 민주당 대표의 부친이다. 김 대표는 1994년 8월 69세로 작고한 선친을 대신해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하고 곧게 결정을 받아 이날 법정에서 나왔다. 김 대표는 "아버지께서하신 일을 내가 이어가겠다. 정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당수는 통일사회당 고문이던 1975년 방곡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된 같은 당 박도 중앙상임위원회의 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추석**처럼 더불어 나누는 광주원광신협이 되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1599-4474**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원 박사 박상준 안장  
동신대학교 외과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계림동 ● 구.한미소점 ● 동부소방서

진료문의 062)227-7575

진/의/사/간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열역순환장어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들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검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음성카운터](주백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발목펌프(주백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신양파크호텔 채용정보**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숲속의 궁전 신양파크호텔에서 함께 근무할 신입, 경력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모집 부문	모집인원	자 격 요 건
재경(회계)	경력 0명	- 회계결산 가능자 - 해당분야 직무 경력 5년 이상 - 운전 가능자 우대 - 상경계열 전공자 우대
프론트	신입 경력 00명	- 전문대학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 호텔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호텔관련 실습 경력자 우대 - 외국어 가능자 우대(영어, 중국어, 일어)
벨 맨	신입 경력 00명	- 전문대학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 호텔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호텔관련 실습 경력자 우대 - 운전 가능자 우대 - 외국어 가능자 우대(영어, 중국어, 일어)
룸메이드	신입 경력 00명	- 학력 무관 - 해당분야 직무 경력자 우대
조리	신입 경력 00명	- 학력 무관 - 해당분야 직무 경력자 우대

**전형방법**

서류전형 → 서류합격 통보 → 면접 → 최종합격 통보

※ 당사 홈페이지 또는 채용담당자 E-mail을 통한 입사지원  
★ 홈페이지 : www.shinyangparkhotel.com 또는 h0104kj@nate.com  
★ 채용문의 : 인사팀 062)221-4172  
관리부장 062)221-4500(010-3624-8589)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